

베트남 관광객 올해 1만여명 전남에 몰려온다...K-관광선도

김영록 전남지사, 현지서 관광설명회·여행상품 협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해외 관광객 유치 탄력 받을 듯

전남도가 베트남 관광객 1만여명 유치를 통해 케이(K)-관광 세계화를 선도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 나트랑 현지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통해 등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손경권 ㈜에이앤디 대표,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영 피서픽항공 부사장과 전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이철 경제관광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에이앤디와 베트남 관광 분야 국영기업인 달랏투어리스트는 피서픽항공을 이용,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올해 3월 말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

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베트남 관광객 전남 방문 최대 규모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설명회 부대행사로 26일까지 이틀간 나트랑시 광장에서 '전남관광 트래블마트'를 열어 전남 여행상품 판촉행사도 진행했다.

전남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알리는 총 8개 부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은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 대상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3월 15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빠르게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이뤄졌다.

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되면 무안국제공항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

도네시아 방문객은 최대 15일 간 전남·광주·전북·제주 체류가 가능하다. 동남아시아 관광시장을 겨냥한 전남 관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관광객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등 무단이탈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탐승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비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 그동안 국내외의 관광업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전남의 경쟁력 있는 청정·힐링·문화자원을 홍보한 결과 대규모 베트남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국제수목비엔날레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해 케이(K)-관광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을 앞둔 25일(현지시간) 나트랑 셰라톤 호텔에서 전남 관광설명회를 열고,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웬 티 김 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손경권 ㈜에이앤디 대표, 응웬 당 끄영 피서픽항공 부사장)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지난 1월 방콕-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그 결과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7항차를 운영해 태국 관광객 1000여명이 전남을 방문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서석새마을금고, 삼일절 앞두고 동구청에 가정용 태극기 400개 전달

광주 서석새마을금고(이사장 정병호)는 삼일절을 앞두고 나라 사랑에 앞장서고자 가정용 태극기 400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에 전했다.

서석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정병호 이사장과 임택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용 태극기 400개 전달식을 했다.

또한, 서석새마을금고는 가정용 태극기 100개를 국기가 없는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삼일절 국기 달기 홍보하고 있다

전달받은 가정용 태극기는 관내 13개 행정복지센터 중 서남, 지산동에 배정 배부되었으며, 각 동에서는 서석새마을금고의 명의로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 배부할 예정이다.

정병호 이사장은 "동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극기 배부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동구 관내 가정용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 보급되어 나라 사랑 의식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광주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최대 3년간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액의 50%...오늘부터 신청 가능

광주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지역 1인 자영업자로, 올해 부담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50%다.

신청은 27일부터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3년간 낸 보험료의 50%를 소급해 환급받는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광주 광산구, 자원순환 AR·VR 체험관 개관

누구나 무료로 이용...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광주 광산구가 22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자원순환 AR·VR 체험관' 개관식을 갖고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체험관은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자원순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조성됐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체험관 면적은 총 97.8㎡이며, AR 체험 공간과 VR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AR 체험 공간에서는 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콘텐츠 등 총 28종 SPODY 연계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VR 체험 공간에서는 HMD(Head mounted Display, 머리에 쓰는 영상표시 장치)기기를 통해 가상현실 속에서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배우고, 수중사파리공원, 정글, 바다 등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등 총 5종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개소식에 참여한 학생은 "가상공간에서 쓰레기를 잡아서 분리배출수거함에 던지는 게임을 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분리배출을 제일 잘할 거 같다"며 "재활용과 분리배출을 집과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임형택 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보험료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연론진흥재단
Korea Public Opinion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
생활 속의 워라밸 실현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복님께서 제안한 슬로런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